

디제잉으로 뭉쳐 ‘우리 동네 클럽’ 직접 만들다



광주 언더그라운드 음악거점 ‘심해’ 김다혜 대표

구시청 지하서 피어난 소리... 광주 청년 문화의 ‘깊은 바다’
“음악 좋아하는 청년들, 일상 바깥 디제잉에 도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기획자이자 DJ 김다혜입니다. 2016년부터 언더그라운드 음악 커뮤니티 ‘심해’를 함께 운영하며 공연과 파티, 전시,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지역의 디제잉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두고, 석사 논문 ‘지역 디제잉(DJing) 문화의 형성 과정과 특징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를 작성했으며, 사람들이 만나 관계를 맺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해’에서의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심해’는 2016년 광주에서 시작한 언더그라운드 전자음악 커뮤니티로, “서울에 가지 않아도 광주에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공연 공간인 ‘심해랩’을 중심으로 DJ 파티를 비롯해 DJ 교육, 전자음악 클래스, 영화 상영, 토크, 전시,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가들과의 협업은 물론 다른 도시와 해외 커뮤니티와의 교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심해’에서 기획과 운영 등을 총괄하며, 디제잉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와 커뮤니티 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문화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확

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심해’의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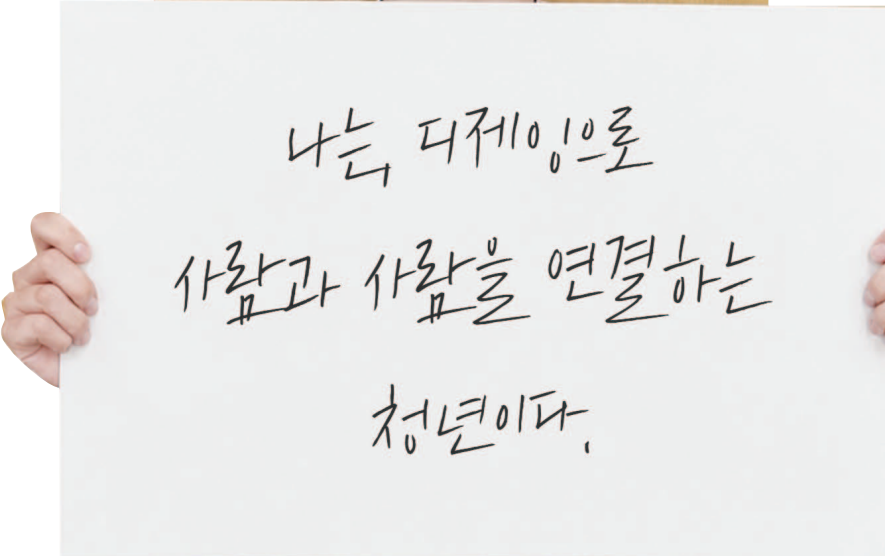
2016년부터 전자음악·디제잉 문화 알귀

-광주에서 언더그라운드 음악 커뮤니티이자 공연 공간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결국 문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 친구가 되고,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며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이 하나의 문화가 된다고 믿습니다. ‘심해’ 역시 공간을 찾는 사람들을 단순한 손님이 아닌,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DJ 교육을 받은 참여자들이 새로운 팀을 만들거나, 처음 놀러 왔던 사람이 직접 파티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성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취향과 문화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상업적인 클럽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언더그라운드 전자음악과 디제잉 문화를 지역에 소개하고, 이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심해랩’은 DJ와 관객, 예술가, 기획자가 자연스럽게 만나 교류하고 협업이 시작되는 문화 거점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프로젝트와



김다혜 대표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심해랩 공간을 만들었던 과정입니다. 2019년 구시청 인근에 지금의 심해랩을 꾸릴 당시, 멤버들이 함께 월세를 부담하고 직접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며 하나씩 공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우리 공간’을 만든다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그 공간에서 처음 DJ를 시작한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또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

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첫 무대가 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정소가 되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오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에 공감하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지역에서도 새로운 문화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심해’를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청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제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인큐베이팅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향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모임을 시작하지만, 공연을 열거나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선보일 기회와 함께할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수익보다 다양한 시도와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더 많은 커뮤니티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문화공간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공연장 등록 기준이나 일반음식점 관련 규정은 작은 공연 공간이나 언더그라운드 클럽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소규모 문화공간 현실 반영 제도적 지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는 박사 과정에서 지역 문화커뮤니티와 문화생태계를 연구하며,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연구와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속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가 어떤 조건에서 성장하는지 꾸준히 탐구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는 최근 시작한 공문장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연장과 일반음식점, 클럽 문화, 춤을 둘러싼 현재의 제도가 실제 문화 현장과 어떤 간극이 있는지 다양한 주제들과 함께 논의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심해랩도 지금의 제도 안에서 운영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당장의 큰 변화보다 공연과 교육,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하며, 지역에서 새로운 취



심해 활동 모습.

향과 문화가 만나는 문화 거점으로 남고 싶습니다. 작은 공간 하나가 오래 유지되는 것 역시 지역 문화생태계 기반에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음악을 좋아한다면 디제잉을 한 번쯤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들던 음악도 조금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일상에 즐거운 취미 하나와 새로운 만남 하나가 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슬기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H글로벌